

통계분석 시리즈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에서는 농식품 소비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통계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있음. 이번 농식품 소비정보 웹진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공급추세 분석을 진행함.

[통계분석 시리즈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발간 시기	분석 내용
2020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 분석 (발간 완료)
6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I (발간 완료)
7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I (발간 완료)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자료 분석
10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II
11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II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자료 분석
2021년 1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III

식품수급표란?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수급 상황을 농수축산물 세부품목별 및 영양소별 자급률, 식품류별 1인당 식품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통계자료임. 식품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본 분석에서 사용된 식품수급표 분석 자료의 가용 기간은 다음과 같음.

-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1962~2018 / 1인 1일당 영양소공급량: 1962~2018 / 영양소 자급률: 1990~2018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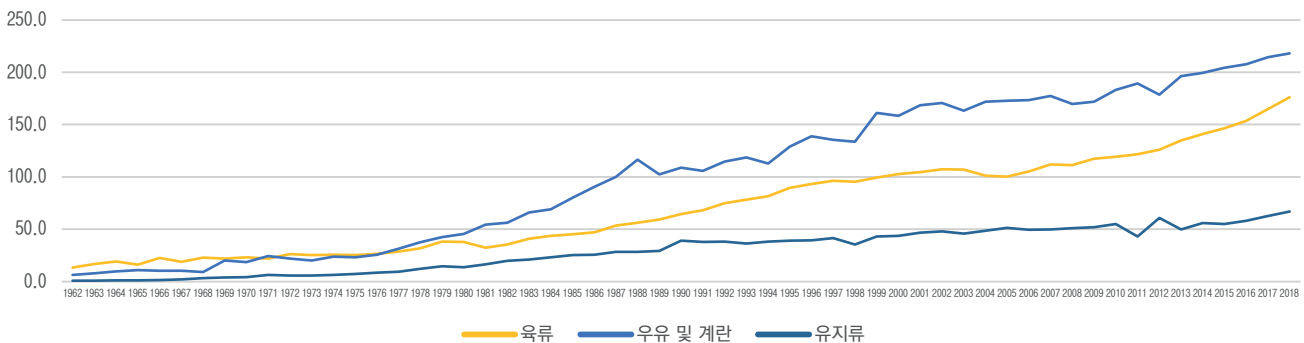
- 1962년~2018년 기간 동안 육류, 우유 및 계란, 유지류의 공급량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곡류 및 두류는 감소추세를 보임.
- 1인 1일당 지방 공급량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에너지(0.6%), 단백질(1.1%)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62년 에너지 공급원은 곡류 및 두류에 압도적으로 의존(94%)하였으나, 점차 다변화되어 2018년에는 비중이 49%로 감소함. 곡류 및 두류와 같은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하던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에너지를 채우려는 경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됨.
-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1962년 식물성 단백질이 87.1% 차지하였으나 동물성 단백질이 점차 대체하여, 2018년에는 동물성 단백질 비중이 반 이상인 56.1%를 차지하게 됨.
- 영양소별 자급률은 1990년 이래로 감소 추세임. 특히 에너지 자급률은 2000년을 기점으로 50% 미만으로 감소, 2011년에는 45% 미만으로 감소한 후 추세를 유지함.

1962년~2018년 기간 동안 육류, 우유 및 계란, 유지류의 공급량 꾸준히 증가, 채소류, 과실류, 어패류, 주류의 공급량은 증가 후 정체, 곡류 및 두류는 감소 추세

- 1962년~2018년 기간 동안 유지류 공급량의 연평균 증감율은 8.2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우유 및 계란(연평균 6.56%), 육류(연평균 4.73%)의 공급량 또한 다른 식품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1.).
- 채소류, 과실류, 어패류, 주류의 공급량은 증가하다 정체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
 - 채소류의 경우 1970년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에 대한 투자가 1976년~1982년까지 공급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¹⁾, 이후 1990년대 부터는 다소 공급량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
- 반면 곡류 및 두류의 공급량은 연평균 0.62%씩 감소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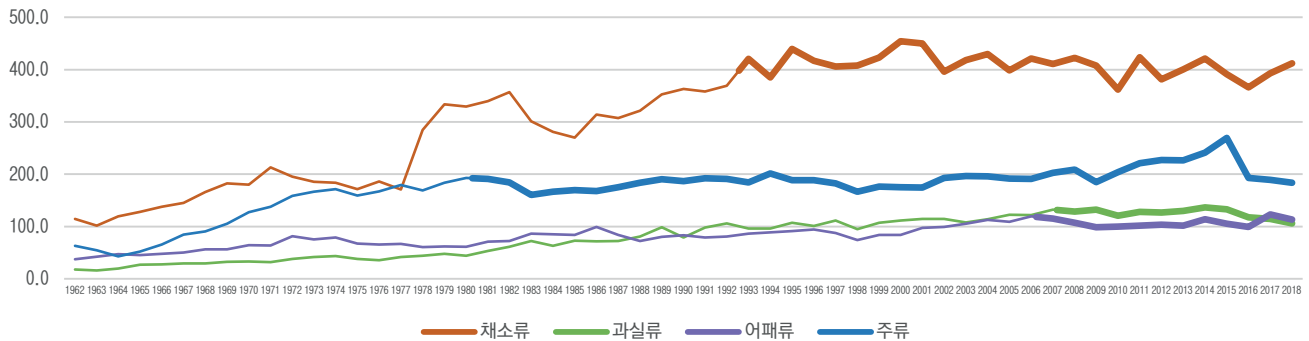
[그림1.]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변화: 우유, 육류 및 계란, 유지류

(단위: g)



[그림2.]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변화: 채소류, 과실류, 어패류, 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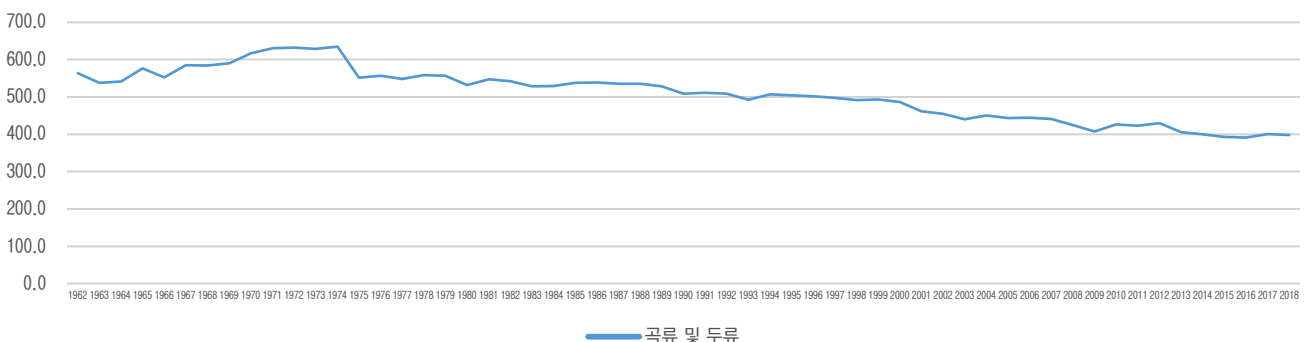
(단위: g)



* 굵은 선으로 표시된 기간은 각 품목류의 공급량이 정체된 기간을 나타냄.

[그림3.]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변화: 곡류 및 두류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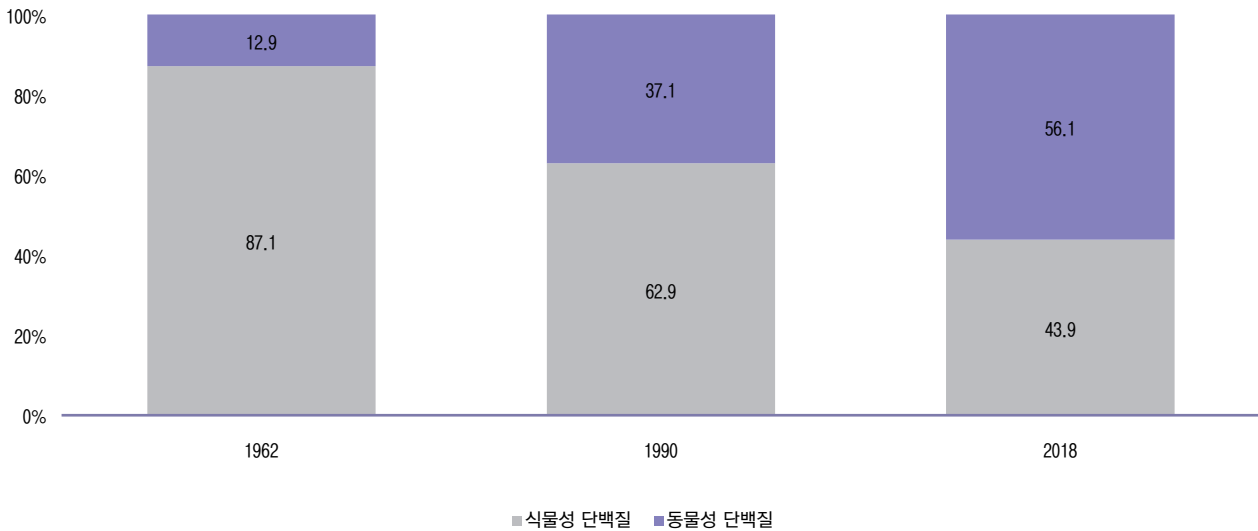
1) 참조: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62858
자료: 1962년~2018년 식품수급표 원자료 분석

동물성 단백질 점차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해 가

- 1962년도에는 곡물 및 두류로부터 제공되는 식물성 단백질(87.1%)이 단백질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그림 6.)
-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 비중은 1962년 12.9%에서 2018년 56.1%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 비중은 87.1%에서 43.9%로 감소 (그림 7, 그림 7-1.)
 - 곡물 및 두류로부터의 단백질 공급 비중 50%p 감소(1962년 약 84% → 2018년 약 34%)
 - 육류로부터의 단백질 공급 비중 27%p 증가(1962년 약 3% → 2018년 약 30%)
 - 어패류로부터의 단백질 공급 비중 8%p 증가(1962년 약 9% → 2018년 약 17%)
 - 우유 및 계란으로부터의 단백질 공급 비중 8%p 증가(1962년 약 1% → 2018년 약 9%)

[그림6.] 1인 1일당 단백질공급량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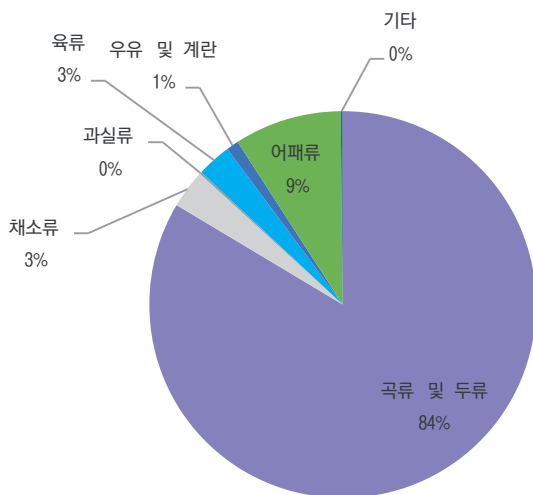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962년~2018년 식품수급표 원자료 분석

[그림7-1.] 1962년 1인 1일당 단백질공급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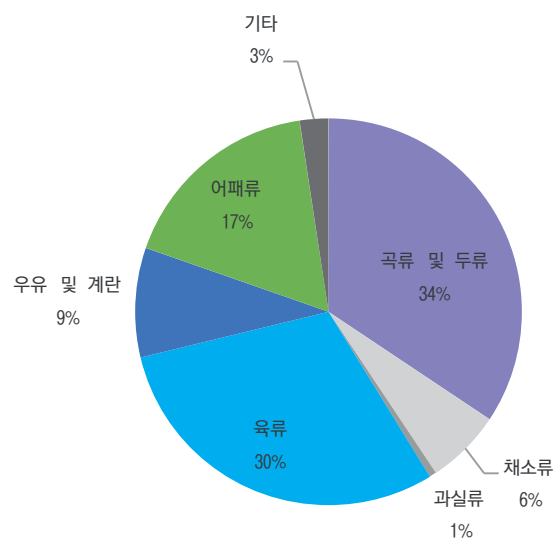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962년~2018년 식품수급표 원자료 분석

[그림7-2.] 2018년 1인 1일당 단백질공급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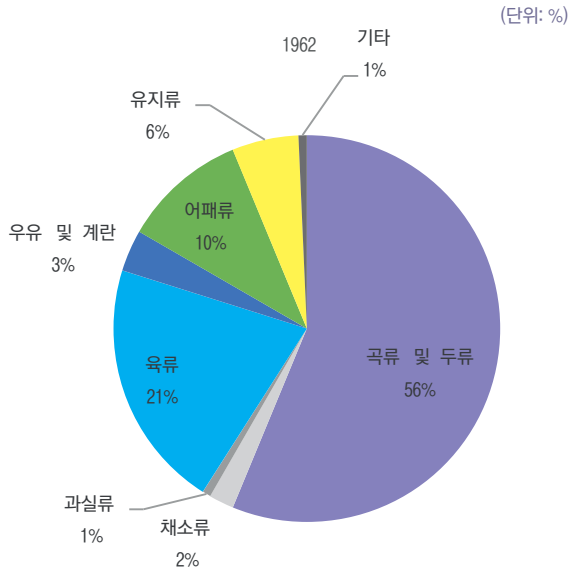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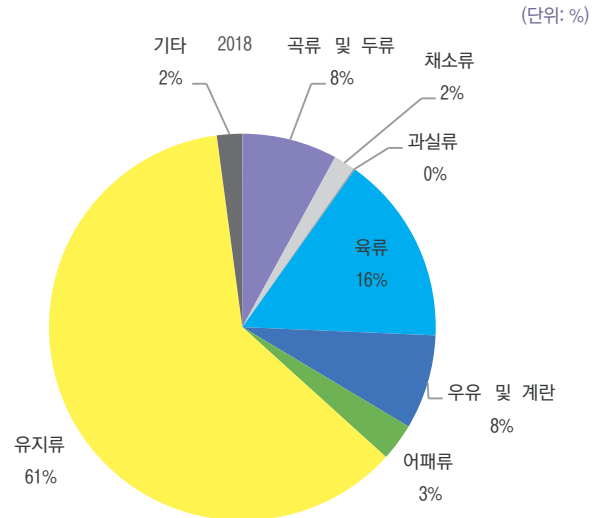
지방 공급량의 증가는 유지류 증가가 견인

- 1962년 곡류 및 두류는 전체 지방 공급량의 절반 이상(약 56%)을 담당하였으나, 2018년에는 약 8%의 비중만을 차지
- 육류와 어패류의 비중 또한 1962년에 각각 약 21%, 10%였던 데에 비해 2018년 약 16%, 3%로 감소
- 1962년 전체 지방 공급의 약 6%만을 차지하던 유지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 그 비중이 약 61%를 차지

[그림8-1.] 1962년 1인 1일당 지방질공급량 비중



[그림8-2.] 2018년 1인 1일당 지방질공급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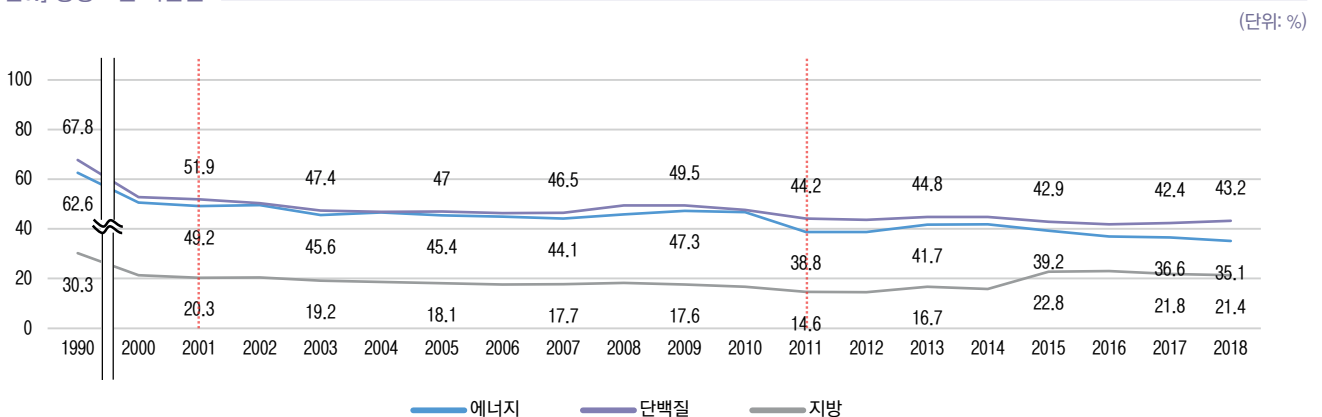


자료: 1962년~2018년 식품수급표 원자료 분석

영양소별 자급률 1990년 이래로 감소 추세

- 에너지, 단백질 자급률은 1990년 이래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에너지 자급률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50% 미만으로 감소, 2011년에는 45% 미만으로 감소한 후 추세 유지
- 지방 자급률은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기점으로 증가

[그림9.] 영양소별 자급률



자료: 1962년~2018년 식품수급표 원자료 분석